

국제금융위기 관련 필리핀 경제동향

□ 종합 상황

- 필리핀 경제는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융 산업 구조조정을 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850만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송금이 약 18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자국 해외근로자송금 감소 및 수출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국제금융위기 관련 필리핀 경제동향

가. 외환시장 동향

- 미 달러 대비 필리핀 페소화 환율은 국제금융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여파로 인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0. 17일 현재 미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은 47.99이며, 이는 금년 1월 대비 17.2% 평가절하된 것이지만, 여전히 최근 3년간 최고치인 56페소 보다는 낮은 수준임.

필리핀 폐소화 환율 변동 추이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
2005	55.76	54.44	54.34	56.00	56.15	54.56	53.61
2006	52.62	51.22	52.13	52.40	50.40	49.84	49.47
2007	48.91	48.52	46.81	45.63	46.63	43.22	41.74
2008	40.94	41.25	42.90	44.96	46.69	-	-

- 무역수지는 '07년도 약 82억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관광산업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호조에 따른 서비스 부문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금년도 종합수지는 약 20억불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외환보유고는 '08.8월말 현재 367억불로서 사상 최고치 기록

나. 금융시장 동향

-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 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08. 3월 기준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CAR)은 15.49%로서 국제기준(BASEL Accord: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BSP측은 필리핀 금융기관들은 최근 Lehman사 등 미국 금융기관 부도로 인해 약 10억불 정도의 손실을 입었으나 필리핀 금융기관 총자산(약 900억불)의 1%수준으로서 금융시장에 특이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 ※ BSP는 '97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제도(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통해 부실채권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는 바, '08. 7월말 현재 부실채권은 약 20억불 규모임.

- BSP측은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년 들어 3차에 걸쳐 총 100 basis-point의 환매조건부 채권금리(Repo Rate)를 인상한 바 있음.

※ '08. 10월 현재 Repo Rate : 8%

다. 주식시장 동향

-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에 따르면 금년 초부터 10월 현재까지 42.08%의 주식시장 가격 손실을 기록하였음.(한국 KOSPI : 34.56%, 말레이시아 KLCI : 35.36%)

- 필리핀 증권시장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발달수준이 낮는데, 이는 그동안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일반 증권보다 고수익인 정부채권 발행 관행, 낮은 저축률, 증권시장 투명성 부족 등에 기인함.

※ '07. 1월 기준 필리핀 증권사 상장 기업 수는 245개로서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약 1,030억불 수준임.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 343개)

□ 국제금융위기 관련 필리핀 정부 및 금융당국의 대응

가. 유동성 공급확대

- BSP측은 현재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필리핀 금융기관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유동성이 부족할 시에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

나. 금리인하 검토

- BSP측은 최근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소화 환율이 약세인 점을 감안해 시기를 검토 중임.

- 필리핀 정부는 재정적자 및 외채상환 등을 위해 가급적 강한 폐소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 관찰 및 평가

- 필리핀은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고 관리변동 환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등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로, 최근 국제금융위기로부터 큰 영향은 없음.
- 그러나 국제금융위기가 향후 3-5년간 지속될 경우, 해외근로자 수입 감소 및 수출타격에 따른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EDCF 필리핀 주재원 제공]